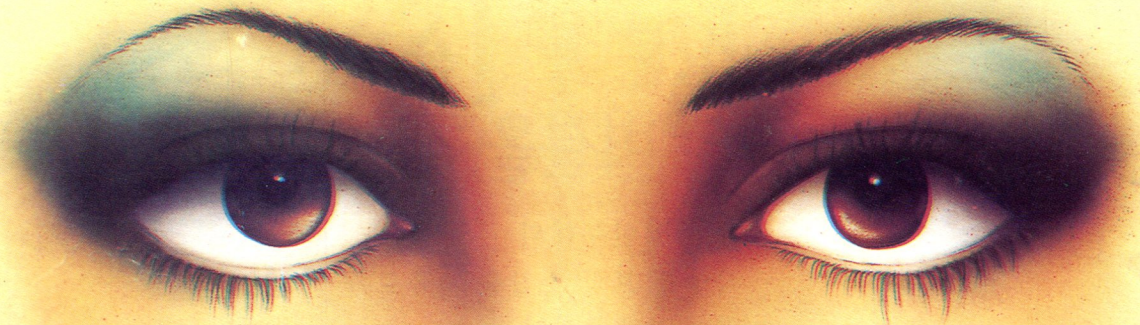


'92 가을

극단 **열린무대**



그 하나,

제1회 교사를 위한 연극교실

최 선 생

work-shop

그 둘,

제6회 정기공연

파우스트를

만드는 사람들

열린소극장

제 1 회
교사를 위한
연극 교실

work-shop

최 선 생



92. 9. 19 ▶ 10. 4

토 · 일만 공연, 4시 · 7시

열 린 소 극 장

최 선생

작 / 품 / 소 / 개

작 김 석 만



“최선생”은 1989년 서울의 어느 국민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극화한 작품이다.

주인공 최선생은 서울 어느 국민학교의 5학년 2반 담임교사이며, 5학년 2반의 학생인 병수, 태학이, 은경이, 경애, 지미, 창환이, 미숙이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보통의 국민학생들이다. 남자애들은 노래하고 떠들며 여자애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고자질하기도 하며 여자애들은 수줍어하고 응석 부리며 인정받고 싶어한다.

이들을 가르치는 최선생은 무엇보다 학생들을 사랑하는 교사이다.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사랑할 뿐 아니라, 있어야 할 모습의 그들로 이끌기 위해 더불어 사는 세상, 진짜 공부를 하는 법을 일깨워주려 한다.

그러나 최선생의 교육관을 막아서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과 마주선 최선생의 자세는 어떠한가, 또한 이 작품을 대하는 관객들은 무엇에 눈떠야 할 것인가, 작품은 낮지만 강하게 질문하고 있다. 아울러 해답도 작품은 그 안에 가지고 있다.

교육현장을 강제로 떠나야 하는 위기에까지 이른 최선생을 둘러싼 학생들, 그들은 이미 참사랑과 정직의 의미를 익히 배워 알게된 터이다. 그리하여 오히려 선생님을 격려하는 성숙된 자세를 보이고 함께 참세상을 꿈꾸는 건강한 노래를 부르는 존재로 자라나 있음을 작품의 결말은 보여준다.

한 교사의 실천적 행동을 통해 진정한 교육의 의미와 교육 현실을 억압하는 요소들에 대해 새롭게 눈뜨게 되는 작품 “최선생”의 각 장면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프롤로그 한 송이 이름없는 들꽃으로

1장 : 숙제가 없는 교실

즐거운 놀이를 하면서 공부하고, 그림에서 빠진 이야기를 글로 씌으로써 상상력을

최 선 생

작 / 품 / 소 / 개

키워가며, 한 달 학습계획표에 의해 각자 미리 공부하도록 하는 진짜 공부를 최선생은 얘기한다.

2장 : 자율이 없는 교무실

시교위에서 시달하는 지시사항을 그대로 행하려는 학교측의 전달에 최선생은 이를 제기한다.

3장 : 성적에 시달리는 아이들

부모의 기대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태학의 문제를 최선생은 함께 고민한다.

4장 : 시험 보고 받는 상

시험 채점한 걸 각자에게 확인시키는 과정에서 틀린 걸 맞게 고치는 아이 병수가 있는가 하면 잘못 가르친 걸 맞게 해주자는 교사 황주임이 있다.

5장 : 학부모 면담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병수의 문제로 최선생은 그의 어머니와 면담을 한다.

6장 : 대책회의

일선 교단에서 일고 있는 의식화 작업을 학교내에선 뿌리 뽑아야 한다는 교장의 방침에 5학년 2반이 문제가 된다.

7장 : 선생님은 마녀

최선생이 모델이 되고 학생들은 그림을 그린다. 자신을 마녀로 그린 병수를 최선생은 감정이 들어 있는 솔직한 그림이라 인정해 주고 병수는 자신의 잘못된 마음을 일기로 표현한다.

8장 : 제각기 자기 빛깔 전시회

학생들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촌극으로 꾸미는데 열중하고 있는 동안 황주임이 들이닥쳐 최선생의 책상 서랍을 뒤진다.

9장 : 교장 면담

몇몇 아이들이 교장 앞에 불려와 최선생의 교육에 관련된 몇 가지 질책을 받게 되며, 최선생은 교장의 추궁과 명령에 항의하고 교장은 최선생의 반발에 분노한다.

10장 : 학부모 반응

최선생의 교육 방법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은 상반된다.

11장 : 선생님 힘내세요

학생들이 담임직을 박탈 당하고 해직 위기에 선 최선생을 찾아 도서실로 와서는 다 같이 “선생님 힘내세요”를 부른다.

에필로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최 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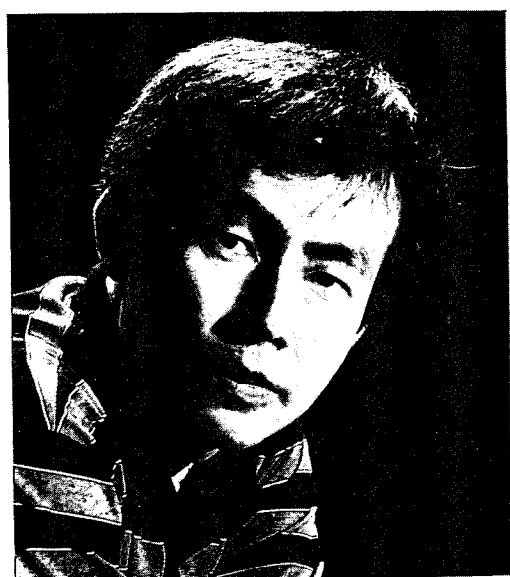
나/오/는/사/람/들



윤 선 희
최선생
(특별출연)



신 창 환
5학년 2반 학생 신창환
유교장



박 병 수
5학년 2반 학생 박병수
황주임



이 지 미
5학년 2반 학생 이지미
미숙 엄마
여교사 1

최 선생

나/오/는/사/람/들



노 태 학

5학년 2반 학생 노태학
노교감



민 경 애

5학년 2반 학생 민경애
태학엄마
여교사 2



조 은 경

5학년 2반 학생 조은경
병수엄마
여교사 3



명 미 숙

5학년 2반 학생 명미숙

제1회 교사를 위한

보 / 고 / 기

최 웅 (극단 열린무대 극장장)

지금까지 극단 열린무대를 찾는 이 중에는 고교 연극반 학생들이 제법 있었다. 대본 선정에서부터 연습, 조명기 설치에 이르기까지 자체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 방문하였다.

학생들의 그런 방문이 잦아지는 과정에서 극단 열린무대가 해야 할 일의 하나를 구상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은 바로 교사를 위한 연극 교실 개최로 실천되었다.

개인적으로 연극을 접해 보려는 교사에서부터 연극반 지도 교사에 이르기까지 교사를 위한 연극 교실을 열면 앞서의 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 가능하며, 그리고 우리의 축적된 경험이나 지식의 나눔이 가능하리라 생각했다.

그리하여 연극 교실 일정 및 강사 선정, 공문 발송, 교재 준비, 신청자 접수 등 일련의 일들을 준비하기에 극단은 꼬박 한 달여의 기간을 투자하였고 몇 번의 준비 모임을 가지면서 상황을 점검해 갔다.

드디어 첫날인 7월 23일, 사전 전화 신청만으로 접수를 한지라 시작 20분 전인데도 한 명만 보였을 때 강사 수보다 적은 인원이 참여하는 건 아닐까 우려되기도 했다.

11시에 즈음하니 속속 도착, 모두 13명이 왔다. 모두 217개 학교에 공문을 보내었으니 15분의 1에도 못 미치었지만 예상 인원을 밑도는 정도일 뿐 행사 진행엔 큰 무리가 없는 인원수라고 판단했다.

연기·회극·연출·무대장치의 이론과 실제, 연극놀이, 연극반 지도, 민요부르기, 야유회 등으로 6일간의 짝짝한 일정이 진행되었다.

형식상의 진행 방법은 두 모둠으로 나누어 대표를 정하고 대표들이 의견 수렴 및 강습회비의 회계까지 맡도록 권유했다. 강습회비를 자치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극단의 요구에 교사들은 딱 당혹해 했으나 극단의 의도가

자발적 운영과 연극 교실이 끝난 후의 지속적인 소모임을 위한 것임을 알고는 흔쾌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었다.

연기를 실질적으로 해보는 과정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굳어진 감정이나 동작을 해방시켜 표현하는데 교사들에게 어려움이 있음이 느껴졌고, 좋은 창작극에 대한 인식, 희곡 쓰기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 학교에서의 공동창작의 가능성이 주로 언급된 희곡창작 시간에는 모둠별 공동창작을 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나 극 구성으로 가기까지는 시간상 무리가 있었다.

연출론에서는 좋은 관객으로서의 연출의 역할을 강조하고 희곡 분석에서 행동 파악 및 성격 분석을 어떤 기준에서 해야 되는가가 제안되었다. 무대화의 단계에서는 모둠별 공동 연출 및 “최선생”의 한 장면 연기를 통한 연출 지도를 실시했다.

무대장치의 실제에서는 특히 학교 연극에서 적용 가능한 무대장치의 구상 및 교실을 이용한 장치를 안내함으로써 이해를 도왔고 조명의 종류 및 효과, 조명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였다.

그외 연극놀이 및 연극반 운영 시안, 민요 부르기 등을 통해 실질적인 놀이 및 부르기를 행할 수 있게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쪽에 주안점을 두었다.

야유회를 결한 자리에서 가진 평가회에서는 알찬 과정이 벅찼지만 만족스런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초점이 모아진 프로그램 제발 및 지속적인 상호교류의 필요성, 행사의 지속성 요구 등을 제안해 주었다.

더욱 알찬 진행으로서의 지속적인 연극 교실 개최를 극단에서도 인식하고 있으며, 첫 회를 통한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무엇보다도 중하게 생각한다.

연극교실

참 / 가 / 기

노 태 학 (교사, 수영여중)

좀 더 자유롭게 살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에 어느 정도 해답을 줄 것 같은 기대감으로 「교사를 위한 연극교실」을 찾았던 첫 날의 기억이 새롭게 다가선다.

열 다섯 남짓한 낯선 얼굴들은 어찌 그리 한결같이 연극에 상당한 관심과 소양이 있어 보였던지.(사실 우리들 중엔 그때까지 연극을 실제로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난생 처음으로 조명이 쏟아지는 무대로 나아갔을 때의 그 묘한 기분과 백지 한 장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의 그 막막했던 심정이란 ...

이어 참가자들은 「첫 무대」(남들은 첫 경험이라 불렀다)와 「해탈」의 두 모둠으로 나눠 연기의 실제와 연출, 희곡의 공동창작 등을 하나 둘씩 익혀갈 때쯤 서로 친숙해지게 되었고 무대에 서는 일도 그리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마지막날 탐골산장에서의 1박 2일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리라. 강병용 쌤이 지도해 준 연극놀이는 우리를 일상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고 송경옥 선생님이 장고 장단을 치며 부르는 민요가락은 우리의 넋을 잃게 하기에 충분한 힘을 지녔었다.

이 석연, 최 웅, 강 현중씨의 뱀장사 흉내에 우린 얼마나 웃었던지, 그러면서 밤은 깊어가고 우린 소주잔을 기울이며 문학과 연극과 인생에 대한 진한 얘기로 밤을 새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우린 기어이 일을 저질렀다. 연극교실에 처음 들어섰을 때의 그 두려운 마음들을 다 잊은 듯, work-shop 작품을 공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가능하거나 한 것인지도 모른 채 말이다.

하여튼 우린 이렇게 시작했고, 할수록 '역시나' 하는 마음에 막막해졌다. 틀에 갇혀 굳

어 버린 생각과 행동에서 자유로워져 극의 상황에 맞는 기분을 낸다는 것이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었다.

특히 국민학교 5학년 동심으로 젖어 든다는 것에 쑥스러워 하고 자신 없음으로 절망할 때, 박 병수 쌤의 노래와 익살은 모든 것을 잊게 해 주었다. 그렇게 우리의 여름 방학은 무더위와 연극 연습으로 고통스럽게 모두 지나갔다.

여름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거의 매일 서로 부대끼면서 느낀 인간적인 따스함, 공동작업이 주는 함께 하는 재미가 그래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두는 힘이 되었으리라. 그리고 연출 선생님의 열성적인 지도와 격려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해 주었고, 열린 무대 단원들의 헌신적인 도움이 연극의 틀을 잡아 주었다.

무더위, 절망, 우리의 땀방울, 연출 선생님의 눈치 보가며 1분이라도 더 쉬고 더 먹고 또 쉬려고 애썼던(?) 시간들이 이제 와선 아름다운 기억일 뿐이고 우리에게겐 관객들을 만나야 하는 두려운 시간만이 남아 있다 ...

무엇이든지 고통과 힘겨운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만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며,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연습시간을 오로지 땀으로써 메꾸려 하고 있다, 막이 오를 그때까지.

이미 관객을 향한 모든 안내가 공식화된 현실이고 보다 나은 만남을 향한 연습 또 연습일 뿐인 현재 상황에서 "최선생"과의 만남은 교육 현장에서나 지하실의 연습에서나 힘이 되리라 믿는다.

우리의 고통, 노력의 결과가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며,

조은경! 고마 먹고 연습하자!

최 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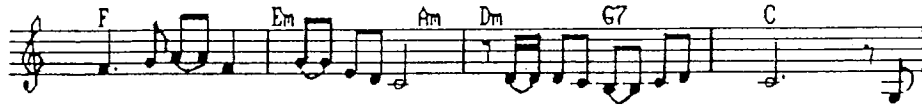
함 / 께 / 부 / 르 / 는 / 노 / 래

꿈이 더 필요한 세상 2

노랫말 가락 백 창우



나- 는누구일 까 너- 는- 누구일 까
친 구여 꿈꾸며사 세 친 구여 사랑하며 사 세



우 리들- 은 이- 제까지 어- 떻게 살아왔을 까
달 힌 마음의 빔장을 열고 사는듯이 살- 아보 세 친



나- 는- 누구일 까 너- 는- 누구일 까
구여 무얼바라는 가 친 구여 무얼 그리는 가



우 리들 은 이- 제부터 어- 떻게살아갈 까 우리
우 리들 의 꿈과 사랑은 아주 가까이있다 네 우리



들 - 의 꿈은 어디쯤에서 예 뿐날 개를 갖게될까 삶이
가 - 는 길에 부는바람이 몹 시사 남고 거세어도 친구



아무리 - 힘겨 워 도 꿈 을 잃-지말 자
여- - 이 겨나 가 세 손 에 손-을잡 고

제 6 회
정기 공연

이 작품은 92년도 부산직할시 문예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연됩니다.

파우스트를

만드는 사람들



92. 10. 15 ▶ 11. 22

(월·화·수 공연 없음)

목·금 7시 / 토·일 4시·7시

열린소극장

파우스트를 만드는 사람들

작 / 품 / 소 / 개

작 권 남 희

“파우스트를 만드는 사람들”은 연극 “파우스트”를 만드는 사람들의 공연 준비 과정을 이야기로 엮은 작품이다.

애초엔 연극하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다소 쉬운 선택 혹은 출발에서 작품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대의 문제가 들어오고, 연극하는 우리들의 자리매김이란 주제 설정에 이르면서 당장 벽에 부딪혔다. 극작업에서 걸러나온 많은 말들의 효과적인 대사화 작업의 문제와, 함께 한 사람들의 잦은 떠남과 새로운 만남속에서 연극에 대한 ‘왜, 어떻게, 무엇을’이란 물음의 명징한 해답으로서의 연극임을 실감할 때 ‘극본 만들기’는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함께 한 사람들의 관심과 열의가 힘이 되고, 무대화의 가능성 등이 확인되면서 대본은 수정에 수정, 그리고 공연에 이르게 되었다.

극의 줄거리를 간추리면,

「공연을 열흘 앞두고 폴딩, 무대장치, 단원의 생일잔치를 준비하면서 단원끼리의 관계, 연극을 하고자 하는 각자의 동기, 연극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꿈들을 펼쳐 보인다. 그런데 파우스트 주연을 맡은 배우가 방송국 출연 제의를 받게 되면서 중심적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극단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한 그레첸역의 여자배우와 선택의 문제를 놓고 갈등하게 된다. 공연을 앞둔 상황으로 연습이 진행되면서 주연배우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방송국쪽을 선택하는 결정으로 단원들 앞에 사실이 드러나면서 극단은 심한 위기를 맞는다.

그러나 메피스토역을 맡은 단원중의 최고 선배와 연출을 중심으로 연극의 존재 이유, 연극관, 연극에의 의지등이 결집되면서 다시 극단은 생기를 찾고 공연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들어간다. 파우스트역은 연극을 처음 하면서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하던 후배가 맡게 되고 마지막 장면으로 설정된 극중극 파

우스트의 선택 부분을 공연하는 가운데 작품은 끝나는」 것이다.

극중극으로서의 “파우스트”는 명작이 갖는 힘에 의지한 바 크며, 파우스트의 선택과 그의 지향성이 갖는 가치, 메피스토펠레스의 유혹과 자극이 지니는 초시대성, 극의 주연 배우의 갈등의 문제와 파우스트를 맞물려 전개시켜 나가는 관련성에 초점을 두어 4장면을 채택했다. 즉 파우스트와 메피스토펠레스와의 계약, 파우스트와 그레첸과의 사랑, 그리고 파멸, 파우스트가 도달한 선택과 뒤이은 구원의 장면이 그것으로 사건 중심의 구성을 기본으로 하여 대사를 취사선택한 것이다.

극의 중심 사건으로 방송국측 출연 제의가 설정된 것은 그 자체가 지니는 현대적 의미의 유혹성과 함께 대중문화가 범람하는 현시대에서의 연극의 자리매김에도 상당한 자극 및 반작용으로 역할할 수 있다는 창의성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보이지 않는 사건’은 바로 연극을 지켜 나가려는 사람들의 건강한 의식, 노동성, 바람직한 연극관 아래 연습과 공연 준비를 해나가는 그들의 일상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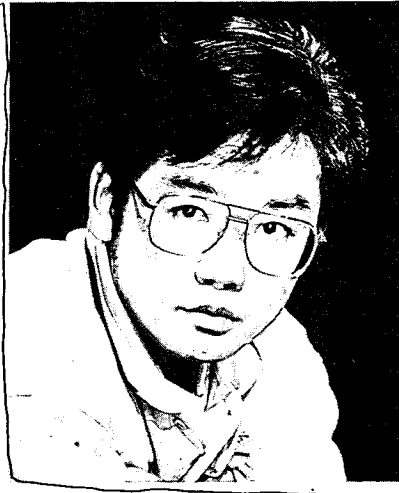
그래서 극의 장면은 생산적이고 노동적인 폴딩, 무대장치, 연습 등으로 가져갔고 파우스트역의 주연 배우도 자기 상황의 절대적인 정당성 아래 연극마당을 떠나는 것으로 그려려 했다. 다만 남겨치는 사람들의 일순간의 휘청거림이 커지면 커질수록 일어서는 모습 또한 건강하고 힘찬 것이므로 무너짐과 일어서의 상징성을 현시적인 무대장치의 세움, 무너짐, 다시 세움으로 설정하여 극은 전개, 절정에 이른다.

우리식의 해명이나 항변이 아니라 연극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자기 추구와 점점이 “파우스트를 만드는 사람들” 안에서 그려져 있기를, 그리하여 보편화될 수 있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기를 작품은 갈망하고 의도한다.

파우스트를 만드는 사람들

연 / 출 / 의 / 말

연출 이 장 복



두
무
대
의
막
을
열
려
다

○ 린 바른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드물다. 먼저 산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의 바른 길을 열거해 놓았다. 문제가 있다면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오랜 인습, 작은 인간 관계들, 또 눈앞의 작은 이익들, 그리고 오만함들이 아닐까.

우리의 교육 현실을 잘 표현한 말이 있다.

‘18세기 교실에서, 19세기 교사들이 20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열악한 교육 현실을 우리의 오랜 인습으로 방치한다면 작금의 청소년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우리의 무질서, 혼돈, 가치관 부재는 점점 더 골이 깊어질 것이다. 1992년 교육 현장에 혼재해 있는 문제를 우린 너무 태연히 방관하는 게 아닐까.

연극 교실을 통해 만난 선생님들과 함께 바른것을 바르다고 말하고 고집하는 “최선생”을 만났다.

바른 행동을, 우리 교육이 지닌 많은 문제점 중 일부를 우린 이 작품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다. 우리 교육의 아픈 현실이 치유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무대를 연다.

유난히 길고 무더운 여름을 땀으로 무대를 지켜주신 연극 교실 참가 선생님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언제부터인가 연극하는 사람들 얘기를 무대화 해보고 싶었다.

대중화된 영상매체의 철저한 발전에도 아직 연극은 제 몫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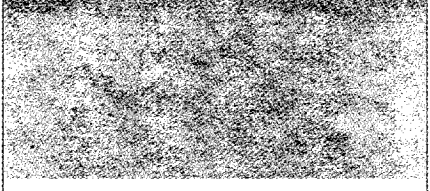
어편이는 대중 영상매체가 마치 연극 존재의 근거를 빼앗아 버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히려 대중 영상매체의 허와 실이 분명해진 지금, 연극은 그 존재 가치가 더 뚜렷해졌다. 광고주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영상 드라마의 편성은 누가 생각해봐도 뻔하다. 인간사의 분명한 가치를 논하는 드라마가 안방에 누워서 리모콘을 누르는 사람들의 시선을 묶어둘 수 없지 않은가?

연극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해진다.

삶의 가치를 찾아 그 가치를 관객과 더불어 나누어 가지려는 노력, 이것은 더욱이 연극인들에게 필요한 점이다. 문학청년적 순수함과 진지함을 가진 사람들, 소주 한 병, 멸치 몇 마리로도 사랑과 낭만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파우스트를 만드는 사람들”에 담고 싶었다.

열린무대 3년의 작업이 우리 역사의 무거운 무게를 다룬 작품이었기에 이 작품은 부담없이 시작했었는데 역시 이 작품도 단원들의 땀과 정열, 그리고 깨어있는 의식이 작품을 가능하게 했다.

창단 3년간 극단, 극장을 지킨 단원들,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고 도와준 여러분께 감사의 절을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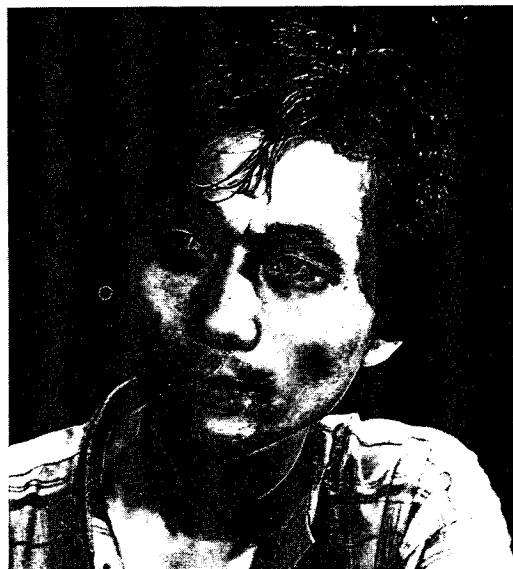


파우스트를 만드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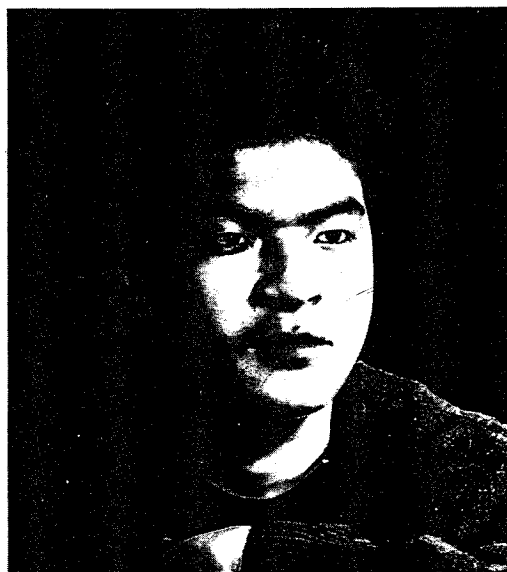
나 / 오 / 는 / 사 / 람 / 들



안 현
파우스트
남우 1



최 응
메피스토펠레스
남우 2



강 현 중
발렌틴
파우스트
남우 3



최 성 우
남우 4

파우스트를 만드는 사람들

나 / 오 / 는 / 사 / 람 / 들



윤 선 희
그레첸
여우 1



권 남 희
여우 2



서 석 현
남우 5



박 미 정
여우 3

파우스트를 만드는 사람들

만 / 든 / 사 / 람 / 들



류 윤 숙
기획



이 지 미
음향



이 길
조명

사진촬영

참빛 사진관

김 동 일

782-7588

← 52번 종점

→ 재송동

참빛
사진관



약
국